

대기업의 산유물이 아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무재해 15배 달성

가 명 노

동양 - 카독크 대표이사

차량 및 건설기계 정비업을 하고 있는 동양-카독크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우리나라의 안전 역사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88년부터 무재해를 시작한 인간존중 기업이다. 여기서 가명노 대표이사와의 특별한 만남으로 그의 안전세계에 대해 들어본다.



무재해 15배 달성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대기업에서도 달성하기 힘든 성과를 모든 것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달성하셨는데,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저희는 차량 및 건설기계 정비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86년에 설립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차량정비의 훈련소 역할을 하면서 많은 정비 전문가를 배출하기도 한 정비소입니다. 무재해달성을 하게 된 계기는 회사 설립이후 직원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던 중 직원 한사람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면서 무재해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만해도 무재해 운동이라는 것은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다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재해 게시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전·충남지역에서 56번째로 무재해 운동을 시작한 회사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재해 운동을 시작하였고, 오늘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영세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 안전이 도외시되는 사회 실정에서 무재해 뿌리를 내리게 되어 뿌듯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득합니다.

15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직원 여러분과 주위의 많은 기관의 가르침에도 감사드립니다.

경이적인 무재해기록을 달성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어려웠는지요.

80년대의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은 많이 낙후된 시대였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관리자나 직원의 의식에는 안전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성과 함께 무재해 게시보고를 시작했을 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무재해 운동을 하자고 했을 때 새마을 운동은 알아도 무재해 운동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노·사 갈등으로까지 연결되었을 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보존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현장에서 잔소리꾼이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 경영주가 확고한 신념으로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따라 줄 것이란 확신 또한 오늘이 있게 까지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가명노 사장님께서서는 일찍부터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영주로서 평소 가지고 계셨던 안전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도덕적으로도 필요한 수단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주에게 있어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의 기반이 되는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기업에 있어 사고로 인해 장애자가 발생한다면 본인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겠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안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이들이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주로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5년을 무재해로 이끌어 오기까지 힘이 되었던 부분과 보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김원석 전회장이십니다. 함께 동양-카독크를 설립하고, 무재해 10배도 함께 달성한 지역 원로이십니다.

지금은 회사를 떠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재단을 비롯해 각종 복지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분은 저에게 회사를 맡기실 때에도 “무재해를 계속 이어가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으실 정도로 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하여 “애들 큰일 없지요?”라고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이 분이 계셨기에 처음 무재해 운동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립하여 훌륭한 기술자가 된 후배들로부터 “사고 없이 안전하시죠?”라는 안부와 예전의 무재해 운동이 지금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재해 동양-카독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것이며,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터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정비기술자도 함께 변해야 하는데,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기술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최종덕 기자〉